

NEWS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발행인_ 임현진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독일사회학 전통의 지속과
새로운 흐름
Evergreens
& New Trends
in German
Sociology -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

02	사회과학의 공공적 가치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04	세계사회과학포럼 (WSSF) 참가기	박 찬 욱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06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대회 (AASSREC) 참관기	장 원 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08	남아시아에 갇힌 인도 (Incredible India)	공 석 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10	독일사회학 전통의 지속과 새로운 흐름 Evergreens & New Trends in German Sociology -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	Markus Pohlmann	하이델베르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	학회동정		
14	협의회행사 / 프로그램		

사회과학의 공공적 가치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사회과학도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다고 자부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제대로 고민해 왔는지 회의 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는 뒤쳐져 있지만 경제력과 같 은 하드 파워가 늘어나면서, 국격을 제대로 세워보자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

과연 나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지식인으로서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신념 과 원칙을 저버리고 야합과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한국사회가 안팎으 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 혼란의 배후에 나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곤혹스럽다. 진리를 식별 해야 할 지식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 사회원로는 요즘“사회과학도가 보이지 않 는다”고 핀잔을 준다. 현실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사회과학도가 본연의 위 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은일(隱逸)이나 곡학(曲學)하고 있다는 할난이다.

이론과 실천의 종합으로서 사회과학의 책무

우리는 사회 여러 곳에서 위험, 균열, 갈등, 위기, 충돌 등을 겪어 왔다. 지식을 통한 이론적 성찰과 실천적 비판을 하는 사회과학은 이에 대해 무언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사회과학 분과마다 사회개입과 참여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사회과학도들에게 난마처럼 얽힌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뿐만 아니라 적실한 해법과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사회과학이 지니는 비판적 문제해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흔히 질풍노도로 비유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학문적.정 책적 공헌은 매우 컸다고 자부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자유와 평등, 축적과 복지, 안 전과 행복 등의 다양한 발전가치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조합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발전과 민주주 의라는 부족한대로 성취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삶의 양뿐 아니라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창발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그간 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SSK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에 걸 맞는 자생적 지식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실상 한국사회는 무궁무진한 연구소재를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수입에서 지식창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 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를 토대로 분과사이의 장벽을 넘는 한국적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원래 사회과학은 위기의 산물이다. 전통을 넘어 근대를 거쳐 탈(脫)근대에 이르는 동안 사회과학은 변동의 와중에서 부단히 문제의식을 키워왔다. 유럽의 경우 계몽주의,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과학은 질서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수구적 변화에 대해 서는 진보의 가치로, 그리고 급진적 변화에 대해서는 질서의 가치로 응전해 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학에 대한 맑스(K. Marx)와 베버(M. Weber), 평등과 자유에 관한 루소(J. J. Rousseau)와 로크(J. Locke), 그리고 정부와 시장에 관한 케인즈(J. Keynes)와 하이에크(F. Hayek) 사이의 입장 차이에서 사회과학에 흐르는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사회과학은 기초학문과 동시에 응용학문의 성격을 갖는다. 현실사회를 대상으로 사실판단에 덧붙 여 가치판단을 하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한 개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과학은 현실 사회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지한다. 그럼에도 때로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보수적 성향의 사회과학자는 체제유지를 위 한 사실판단을 선호한다. 이와 달리 진보적 성향의 사회과학은 체제혁파를 위한 가치판단을 지향 한다. 사회과학자의 역할이 사제적(司祭的)인 것과 예언자적(豫言者的)인 것으로 구분되는 배경이 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유해야 할 기본적 가치는 사회과학이 일종의 공공재로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더라도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사회과학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 에서 보수와 진보가 만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조직이자 나아가 초제적(trans-disciplinary) 연구공간으로서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교차하면서 차이를 드러 내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면 누 구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과제를 사회과학이 안 고 있는 것이다.

중범위의 유토피아를 찾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고물가 등 경기침체야래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성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고민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다. 이는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 와중에서 빈부격차, 가족해체, 보혁대립, 지역주의, 세 대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정치균열로 나아갈 수 있다. 구(舊)빈곤층에 덧붙여 신(新)빈곤층을 꺼안기 위해선 단순한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기론 부족하다. 전통적인 복지(welfare)를 ‘일하는 복 지’(workfare)와 ‘배우는 복지’(learnfare)로 보완하려는 발본적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의 역사는 기존의 이론체계로 사회현실을 설명하지 못할 때 새로운 이론체계가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근대화 이론에 대한 네오 맑스주의 이론의 등장, 네오 맑 스주의 이론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재등장,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신제국주의 이론 의 반격이 좋은 보기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특정 패러다임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해 비판적 이해 를 구할 수 있었다. 정부에 대한 맹신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균 형감각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관에 따른 진단지와 처방 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예언자적 사회과학도의 존재초월적(存在超越 的)인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사제적 사회과학도의 존재구속적(存在拘束的) 이데오로기가 지니는 자기 최면이나 독단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중범위의 유토피아’(middle-range utopia)를 찾아야 한 다.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넘어 이상을 추구하되 공공성의 기반아래 실현가능 한 대안을 찾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회과학도의 책무다.

세계사회과학 포럼(WSSF) 참가기

박 찬 욱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세계사회과학협의회(ISSC: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는 2009년 5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제1차 세계사회과학포럼(WSSF: World Social Science Forum)을 개최한데 이어 2013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사회변동과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제2차 WSSF를 개최했다.

본인은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 정용덕 회장(2012-13)으로부터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아 WSSF에 참가했다. 그 임무란 첫째, KOSSREC이 조직한 “디지털시대의 공공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제하 패널의 사회를 맡는 것이었다. 이 패널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공공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혁신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했다. 둘째, 2018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4차 WSSF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ISSC의 Alberto Martinelli 신임회장(밀라노대학 정치학·사회학 명예교수), Heide Hackman 사무총장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었다. 정 회장은 이미 2013년 5월 Hackman 사무총장을 국제회의에 초청하여 KOSSREC의 WSSF 유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었다.

WSSF에 참가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중요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학제간 연구를 증진하는 사회과학자 협의기구로서의 ISSC를 좀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SSC는 유네스코 후원 하에 1952년에 설립되었고 사무국을 파리의 유네스코당지에 두고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제적으로 조직된 사회과학 관련 학술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학술원과 KOSSREC이 ISSC의 회원이다. 3년마다 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매년 1-2회 소집된다. ISSC의 주요 활동은 세계사회과학보고서 발간(가장 최근 것은 2013년의『글로벌 환경의 변화』)과 WSSF 개최를 비롯하여 차세대 사회과학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펠로우 프로그램, 국제적인 사회과학 연구프로젝트(최근에는 2013년 말의 “리스크의 해석과 행동”), 신진학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회의(예로, 미래의 식품문제에 대한 회의) 등을 포함한다.

WSSF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술행사로서 사회과학자들이 다양하며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학문과 지역에 걸친 교류와 토론의 장이다. 이 포럼의 주제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되고 각 분야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 주제는 국가와 문화를 초월한 광범위한 공공의 관심을 반영해야 하며 발전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최신 주요이슈를 포함한다. 주요 세션은 사회과학이 인문학, 자연과학과 융합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 포럼은 공공정책과의 관련성을 갖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개발도상국의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2013년 10월의 제2차 WSSF는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사무국 컨소시엄의 도움을 받아 조직, 운영되었다. 이 행사가 개최된 Palais des congrès는 북미에서 가장 저명한 거대 컨벤션센터이다. 8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1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운집하여 3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사회과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논의했다. 개막식에는 캐나다 총독을 비롯한 주요 고위인사가 특별연사로 나섰으며, 폐막식에는 2015년 9월 남아공 더반에서 “공정한 세계를 향한 글로벌 관계의 전환”을 주제로 개최될 제3차 WSSF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패널의 총수는 약150개에 달하였다. 그 밖의 행사로는 특별상(Stein Rokkan 비교사회과학연구상, Mattei Dogan 학제간연구상) 시상,

아고라 발표(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의 시연 및 발표), 영화의 밤 등도 진행되었다. 개최비용의 규모는 약100만 유로(15억원)라고 알려졌다. KOSSREC 패널에서는 엄석진(서울대 행정대학원), Jane Fountain(미국 매사추세츠대), Hiroshi Shiratori(일본 법정대), Sun Yu(중국 베이징사범대) 교수가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2018년 10월경 예정된 제4차 WSSF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사회과학계는 연구성과를 전세계와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분단,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 평화와 통일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KOSSREC은 ISSC,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WSSF 유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개최될 ISSC집행위원회 이후 문서를 통한 유치신청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KOSSREC이 전략수립에 착수할 시점이다.

2013년 제2차 WSSF의 KOSSREC 패널 참가자

(사진 좌측부터 Sun Yu, 박찬욱, Hiroshi Shiratori, Jane Fountain, 엄석진, Emma Woo, 강신택 교수)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 대회(AASSREC) 참관기



장 원 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2013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 20차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 대회에 임현진 회장님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사회과학협의회가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의장국으로 이번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대회의 규모나 미디어의 보도 등을 볼 때, 필리핀 사회과학협의회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 필리핀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20여 국가에서 발표자 및 업저버를 파견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Ageing in Asia-Pacific: Balancing the State and the Family”였고 참가국의 발표자들은 아시아 각국의 고령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일본의 사이토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였는데, 향후 한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각국의 발표자들이 자국의 고령화 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임현진회장님과 필자도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한국이 고령화 진행과정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특히 노인자살률의 급증을 설명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실 필자는 이 대회가 세부에 있다고 해서 그 유명한 세부의 바닷가를 즐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 장소가 바닷가가 아닌 시내였고 임현진 회장님이 이틀에 걸친 회의 기간 내내 회의장을 지키시기에 필자의 기대는 꿈으로 전략해 버렸다.

앞에서 필리핀 사회과학협의회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대회를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아시아 각국에서의 사회과학협의회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우리 협의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의 학술단체인데 비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과학협의회가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이었다. 향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도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 기관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에 갇힌 인도 (Incredible India)

공 석 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지난 3월 13~15일 동안 인도 사회과학협의회 (Indian Council of Social Science Research) 와 국제개발연구원(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캐나다 소재)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를 다녀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정책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인도 사회과학협의회는 작년 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이번 회의에 공식 초청하여 부족하지만 필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필자는 인도전문가라기 보다는 평소 인도에 대한 관심과 인도시민사회에 대해 짧게나마 연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와 앞으로 한국의 사회과학연구 협력의 지평을 남아시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임현진 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의 강력한 권유에 힘입어 참여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두 번째 인도방문임에도 인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델리로 가는 중에 미국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인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인도에 이미 온 것 같은 착각을 하였고, 특별히 그들이 모든 항공 서비스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면서 실리적 인도인의 진면목을 확인하였다. 자정을 넘어 도착한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은 대낮처럼 많은 여행객으로 붐볐다. 공항주변에는 새로 보이는 편의시설 및 지하철이 건설되었고, 도로사정도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 동안 인도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느리게 대응하면서 경제성장도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5월 인도 총선을 앞두고 유력후보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전 구자라트 주지사)가 힌두 근본주의에 근거한 인도국민당의 총리 후보로 나서면서 국영/공영기업의 비효율성 및 부패문제를 지적하면서 개방화, 민영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총선 결과 모디는 개방과 발전을 원하는 인도인의 압도적인 지지 위에 간디 집안의 세습정치를 누르고 최고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힌두 민족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디의 개방화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도에 대한 관심과 남아시아의 다양한 학자를 만난다는 기대를 갖고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다.

학술회의 공식일정 하루 전인 3월 12일에 필자는 인도사회과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1985년에 설립한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인도연구-지역발전, 여성정치 참여, 인도 민주주의, 인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의 지역연구의 중요한 통로 및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조지 매튜(George Mathew) 소장은 한국의 진보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실 인도사회과학연구소는 델리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문과 정책의 독립성을 견지하는 사회과학 연구 싱크탱크(think tank)이다. 물론 정부로부터 건물과 땅을 제공받았다. 진보적 색채의 연구 및 정책제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구소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사들의 방문 및 강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인도 총선을 앞두고 유수의 국제 싱크탱크와 함께 인도의 정치 시민사회 이슈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프로젝트를 바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인도 총선 현장에 한국 연구자들도 인도학자들과 함께 참여 관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사실 매튜 소장을 제외

하고는 연구소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한국과의 연구 및 교류협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뉴델리 아쇼카 호텔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어느 국제학회에 비견할 만큼 대규모 국제학술행사였다. 총 9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표 및 토론자가 총 90명에 이르렀고, 참가국 수는 23개국에 달했다. 사흘간 온종일 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하루 평균 150명이 참석하였고, 공식초청을 받은 참여자의 경우는 모든 여비와 숙식을 제공받았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조직위원장인 ICSSR 소장은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NU) 경제학과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국제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정부의 주요 연구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가형 학자라고 평평이 났다. 그는 그동안 인도를 비롯하여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동북아시아-과거에는 남아시아에 속한 것으로 언급됨-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연구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 여러 차례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필자 한 사람이 참여했고, 일본의 경우는 2명이 참여했으며, 중국의 경우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필자가 참석해본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동북아시아가 소수그룹으로 느껴진 경우는 처음이었다.



문명대국인 인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한 사회과학연구자들과의 끊임없는 만남은 하루 종일 회의 장소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고 신기했다. 그들도 한국에서 온 젊은 학자여서인지 끊임없이 다가와 한국에 대해 질문하고 한국에 대한 연구관심을 보였다. 특히 젊은 연구자(포스닥,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연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했다. 사실 한국은 인도와의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연구/교류 협력이 매우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도는 그저 여행지, 신비의 땅, 히말라야, 불교, 카스트, 간디와 타고르, 볼리우드(Bollywood) 등으로 이미지가 제한되어 있다. 인도는 역시 알면 알수록 이러한 문명대국이 어떻게 민주정치제도를 유지발전 시키고 복잡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끈이 계속 이어진다. 인도는 정말 인크레더블(Incredible)!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도를 정말 모르고 있다. 스리랑카, 부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미얀마 등의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인도가 아우르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이 사회과학은 물론 연구재원까지 인도에 매우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지역 연구자들은 여전히 남아시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구미 특히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재원이 인도를 통해 인도 지방과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남아시아 지역 연구자간의 네트워크만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인도 사회과학역시 New East Policy를 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인도가 그 동안 축적한 심도 깊은 사회과학 연구 결과물-민주주의, 인권, 여성참여, 지역발전 등-을 남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한국 사회과학협의회가 그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협의회가 향후 3년 동안 저명한 남아시아 사회과학자를 대상으로 '남아시아 Lecture 시리즈'를 연 10회 정도 진행한다면 남아시아와 한국 사회과학의 만남은 훨씬 빈번해 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국내에 남아시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연구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 이슈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Dynamic Korea의 닉네임처럼 한국사회과학협의회도 Incredible India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역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독일사회학 전통의 지속과 새로운 흐름

Evergreens & New Trends in German Sociology -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

Markus Pohlmann
하이델베르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2014년 4월 4일(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303호)에서
2014년 제1회 사회과학협의회 월례 세미나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 개최되었다.
발표자 Markus Pohlmann교수는 하이델베르그대학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다.
Pohlmann교수는 “Evergreens and New trends in Sociology: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라는 제목으로
독일 사회학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사회학자라면 사상가(Thinkers), 연예인(entertainers), 비평가(critics), 연구자(researchers) 등 네 가지 모습이 연상되어 왔다. 독일 사회과학계는 정책지표에 의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출판, 응용, 강좌 디자인 등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생산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량적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철저히 성과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다만 하급 연구직종의 경우 단기계약위주라는 점이 한계다.

독일2.0 시대를 맞아 사회학자의 롤모델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표 체계에 영향을 받는 순응주의자로 변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성과는 나타났다. 연구분야에서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으며,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전공연계 취업자 비율도 높다. 경제, 사회부문에서 졸업생에 대한 수용성 및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사회학 전공이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이델베르그대학 사회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학과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2005년에는 67.3%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92.9%로 크게 높아졌다. 취업 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회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0년에 92.9%로 2005년(77.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과학계의 한계와 실패 사례도 존재한다. 우선, 정교수와 하급 연구자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취업분야와 해외진출(7%)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 전공자의 참여율도 25%로 낮은 편이며 경제, 사회 부문, 특히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는 연구자도 적다.

독일에서 자생한 거대 사회과학 이론은 크게 빌레펠트의 시스템 이론, 만하임의 합리적 선택이론, 여러 대학의 제도이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예나의 비평이론 등이다. 여기에 푸코의 담론이론과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이 추가될 수 있다.



문화사회학 분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생학문이다. 이 분야의 최근 핫 이슈는 트랜스컬처 연구이다. 문화사회학 분야의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저개발의 원인을 둘러싼 이론적 대립이다. 하버드의 경우 '저개발은 마음의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베버학파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문화융합과 문화적 다양성 논쟁도 트랜스컬처 분야에서 논쟁의 주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들어 주목을 받게 된 경제사회학 분야는 주로 미국에서 이론이 유입되었다.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이슈는 금융시장이다. 1980년대에는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제도가 착근된 경제학이, 90년대에는 자본주의 및 변화를 위한 제도 확립, 그리고 2000년대에는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네트워크 이론이 경제사회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경제사회학 분야의 주된 논쟁은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신자유주의 비판 및 반자본주의 간의 대립이다.

조직사회학 분야는 1990년대 이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조직사회학의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제도이론과 조직문화였다. 1990년대에는 시스템으로서의 네트워크와 조직, 그리고 2000년대에는 초국가적 비정부기구가 주목받는 연구분야였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시민과 기업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종합하면 독일 사회학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정교수와 하급 연구직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다. 사회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독일 사회학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함께 주로 미국에서 유입된 학풍과 연구경향이 독일 사회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향되고 일방적인 아이디어의 흐름이다. 미국에서 독일로는 유입되고 있는데, 반대의 경로는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는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해 동부나 남부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사회학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회동정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1.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제학술회의

주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하계 학술회의

주제 : “동아시아 질서의 재해석과 한반도”
일시 : 2014년 8월 22~23일(금, 토)
장소 : 속초 마레몬스호텔

2. 한국교육학회

» 연차학술대회

주제 : “창조사회에서의 행복교육”
일시 : 2014년 6월 27~28일(금, 토)
장소 : 고려대학교

3. 한국행정학회

» WCPA(World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주제 : “Public Administration and Happiness—Policy Management
& Politics from the Global Perspectives”
일시 : 2014년 6월 25~27일(수~금)
장소 : 대구 EXCO

4. 한국사회학회

» 2014년 전기사회학대회

주제 : “불안의 시대, 사회학 길을 찾다”
일시 : 2014년 6월 20~21일(금, 토)
장소 :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세계사회학대회(World Congress of Sociology) 내
Korean Sociology Forum 개최(예정)

일시 : 2014년 7월 16일(수)
장소 : 일본 요코하마 Yokohama Information and Culture Hall

» 2014년 후기사회학 대회(예정)

일시 : 2014년 12월 19~20일(금, 토)
장소 : 중앙대학교

5. 한국여성학회

» 춘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여성학 30+: 여성주의 발전과 불균등성”
일시 : 2014년 6월 21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 추계학술대회(예정)

주제 : “한국여성학 30+: 시간의 정치학과 젠더”
일시 : 2014년 11월 22일(토)
장소 : 신라대학교

6. 한국언론학회

» 현 단계 언론의 위기 진단과 처방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세미나

주제 : “콘텐츠 글로벌화 전략, 새로운 한류 지평을 향해서”
일시 : 2014년 7월 1일(화)
장소 : KBS 라디오 공개홀

» 제20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4년 8월 23일(토)
장소 :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7. 한국경영학회

» 2014 한국경영학회 CSV 춘계심포지엄 및 최우수 경영대상 시상

주제 : “창조경제시대의 공유가치 창출: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일시 : 2014년 5월 29일(목)
장소 : 신라호텔 에메랄드홀

» 제16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 학술회의

주제 : “창조, 도시변영, 그리고 미래경영”
일시 : 2014년 8월 18~20일(월~수)
장소 : 대구 엑스코

8. 한국 경제학회

» 제16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 “Post-Tapering Prospect of the East Asian Economy
and Reshaping the Korean Economy”
일시 : 2014년 8월 11~12일(월, 화)
장소 : 연세대학교 대우관

9. 대한지리학회

» 2014년 지리학대회

주제 : “융합시대의 신지리학”
일시 : 2014년 6월 20~21일(금, 토)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2014 한중일 지리학대회

주제 : “The Local Bridging the Global”
일시 : 2014년 7월 6~9일(일~수)
장소 :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10. 한국정치학회

» 2014년 춘계학술회의

주제 : “한국정치학의 새로운 담론”
일시 : 2014년 4월 24~26일(목~토)
장소 : 목포대학교

» 2014년 하계학술회의

일시 : 2014년 8월 19~20일(화, 수)
장소 : 부산(예정)

11.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일시 : 2014년 8월 28~30일(목~토)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12. 국제개발협력학회

» 2014년 춘계학술대회

주제 : “21세기 원조와 민관협력의 조화”
일시 : 2014년 5월 17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13. 한국사회복지학회

» 2014년 춘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사회복지, 길을 묻다”
일시 : 2014년 4월 25~26(금, 토)
장소 : 부산 벡스코

14. 경제사학회

» 2014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4년 5월 17일(토)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 한국문화인류학회

» 2014 한국문화인류학회 봄 포럼

주제 : “인류학의 학문후속세대”
일시 : 2014년 5월 23일(금)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4 한국문화인류학회 춘계 학술회의

주제 : “감성의 인류학 : 향수와 한국사회”
일시 : 2014년 11월 14~15일(금, 토)
장소 : 영남대학교

협의회 행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1. 2014년 제1차 이사회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11:30~13:30
장소 : 광화문 용수산
안전 : 협의회 활동 계획 보고, 안전 토론
참석자 : 이사진, 회장단, 운영위원

2. 2014년도 제1차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 2014. 3월 6일(목) 8:00~10:00
장소 : 프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안전 : 신입회장 인사, 2014년 사업 보고 등
참석자 : 회장단, 회원학회 회장 등

3. 2014년 제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4년 3월 17일(일) 8:00~9:30
장소 : 프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안전 : 협의회 활동계획 보고, 기타 토의
참석자 : 회장단, 운영위원 등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워크숍

일시 : 2014년 3월 20일(수) 16:00~18:00
장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실
발표 : - 조병희(서울대),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의 과제”
- 전재성(서울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전망”
- 이상협(U Hawaii), 박동현(ADB),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함의”
토론 : 김광기(인제대), 박인휘(이화여대), 이윤석(서울시립대)
사회 : 손열(연세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5. 제1회 사회과학협의회 월례 세미나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일시 : 2014년 4월 4일(금) 11:00~12: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실 303호
발표 : Markus Pohlmann (하이델베르크대학 사회학과 교수)
“Evergreens and New trends in Sociology: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

6. 사회과학연구진흥(SSK)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나눔의 사회과학”

주최 및 주관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미래인력
연구원 : 후원 : (주)한겨레신문사
협찬 : 한국연구재단
일시 : 2014년 5월 30일(금) 13:00~18:10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

개회사 (13:00~13:05)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축사 (13:05~13:10) 김세영(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기조강연 (13:10~13:30) 정용덕 (전)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협의회 행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제1패널(13:30~15:40): 나눔의 경제와 기업

사회 :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한국경제학회장)
발표 : 1.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가치창출형 나눔과 상생협력: 물에서 돌이 된 한국의 불통”
3.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협력경영의 필요성과 진화과정”
4. 이홍(광운대 경영학과), “기업의 나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실천할 것인가?”
토론 : 이제민(연세대 경제학부), 오명열(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휴식(15:40~16:00)

제2패널(16:00~18:10): 나눔의 사회와 정치

사회 : 박찬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발표 : 1. 한상진(서울대)·남은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주-직원 공생과 노블레스-오블리주: 중민이론의 재조명”
2. 김상욱(성균관대 사회학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1990~2009”
3.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분배친화적 정치체제: 합의제 민주주의”
4. 강명세(세종연구소), “나눔의 정치는 언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 : 유팔무(한림대 사회학과), 이연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만찬(18:10~20:00)

7. 한국사회과학협의회-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1차 합동포럼

주제 : “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만남”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14: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8. 2014년 6월 KSSJ 41권 1호 발간

9.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재홍 교수님의 논문

“사회투자 국가 전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서유럽 6개국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보』 42 (3) (2008): 359~87 게재)가 중국사회과학원 신식정보연구원 박광해 교수님의 번역으로 『국외사회과학』, 2014년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해외 학계에 한국사회과학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 논문의 번역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하반기 행사(예정) 안내

1. 국제학술대회 “갑오년의 동아시아와 미래 한국: 1894와 2014”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9:30~18: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 SSK 연구사업단 연합 심포지움(상세 사항 추후 공고 예정)

일시 : 2014년 12월
장소 : 한국 UNESCO 회관(예정)

소식란

1. 2014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향후 5회의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사회과학계의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사회과학의 공공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제 1회 월례 세미나에서는 4월 4일(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하이델베르그대학 사회학과 Markus Pohlmann 교수가 "Evergreens and New trends in Sociology: Culture, Economy, and Organization"라는 주제로 독일 사회과학계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 2014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계와 사회과학계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 1회 합동 포럼은 6월 12일(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3.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께서 2014년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 2014년 5월 16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5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황일청 이사님(전 한양대 교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회장단

회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부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부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부회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부회장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부회장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
감사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감사	신상협	경희대 국제통상협력학

이사회

이사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명예교수)
이사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명예교수)
이사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명예교수)
이사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명예교수)

운영협의위원회

경제사학회	정진성	방송대 일본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신상협	경희대 국제통상협력학
대한지리학회	손 일	부산대 지리교육
한국경영학회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국제정치학회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한국문화인류학회	문옥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영종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윤정로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
한국심리학회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
한국언론학회	김동규	간국대학교 신문방송학
한국여성학회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한국정치학회	김영재	청주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총무위원회

- 공동 위원장(사무총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 공동 위원장 **황석만** 창원대 사회학
- 위원 **서문기** 송실대 정보사회학
- 위원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
- 위원 **이주현** 서울시립대 행정학
- 위원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회

- 위원장 **손 열** 연세대 국제학
- 위원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 위원 **이정환** 국민대 국제학
- 위원 **정재용** KAIST 경영학
- 위원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
- 위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

편집위원회

- 위원장 **오철호** 송실대 행정학
- 위원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 위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 위원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 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
- 위원 **최영종** 카톨릭대 국제학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MEMO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T. 02 735 2159 F. 02 737 3264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304-28 Sajik-dong, Jongno-Gu, Seoul, Korea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www.kossrec.org

